

산업현장 직접 찾아가 '적극 소통'

전북도- 전북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참여기업 방문... 기업 애로 해소·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도가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참여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 23일 (주)올릭스(전주), (주)메타로보틱스(익산), 26일에는 (주)서우엠에스(군산), (주)하다(익산), (주)비이(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수행 기관인 전북 테크노파크와 함께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기업의 성과 공유,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 시찰 등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금년도 계획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의 건의사항 및 협력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시간을 가졌다.

(주)올릭스(전주), (주)메타로보틱스(익산)는 연구개발 1과제, 2과제에 대표 기업으로 참여, '기능성 식물의 최적 생육환경 제어'를 통한 생육 고도화 및 생산시스템 상용화, '클라우드 기반 축산 무인 방역 및 관제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주)올릭스의 경우 LED 조명을 이용



전북도가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참여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 23일 (주)올릭스(전주), (주)메타로보틱스(익산), 26일에는 (주)서우엠에스(군산), (주)하다(익산), (주)비이(전주)를 방문했다.

해 최적의 성장조건을 찾아내고 생산·설비시스템을 고도화해 도내 농가 및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특용작물(새싹삼, 새싹보리)의 스마트 재배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주)메타로보틱스는 축사 내 무인차

량을 이용한 방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간 개발한 연구성과를 실험하기 위해 도내 축사를 섭외, 무인방역체계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우엠에스(군산), (주)하다(익산),

(주)비이(전주)는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우엠에스는 표고버섯 대량 재배 스마트팜, 표고버섯배지 코팅기 등을 제작해 특허출원(3건), 해외(인도)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을 올렸다.

(주)하다는 발작물용(마늘) 줄기절단기 시제품 및 관련 교육영상을 만들었으며, (주)비이의 경우 지능형 거점소독시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들 참여기업 모두 공공기관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눈에 띄는 매출과 고용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최창석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스마트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는 기업에 감사드리며, 올해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추진 마지막 해로 곳곳에서 사업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해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아이들에게 위로·힐링을

어린이창의체험관, 문화 소외지 대상 '찾아가는 인형극' 순회 공연 진행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창의체험관)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인형극'이 지난 25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시·군 순회 공연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창의체험관은 올해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맞춰 도내 4개 극단이 전 시군을 순회하며 20회의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인형극'을 준비했다.

공연작으로는 △ '뿌비 메가피쉬', △ '카멜레온 애벌레, 허미와 친구들', △ '깨끗한 것은 싫어', △ '돼지똥이 들려주는 의종은 형제'로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지역 격차 없이 경험하게 하고자 시·군이 희망하는 지역 예술회관 및 공연장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창의체험관은 상대적으로 교통 및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순회공연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 공연장'으로 대체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인형극'을 준비했다.

공연작으로는 △ '뿌비 메가피쉬', △ '카멜레온 애벌레, 허미와 친구들', △ '깨끗한 것은 싫어', △ '돼지똥이 들려주는 의종은 형제'로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지역 격차 없이 경험하게 하고자 시·군이 희망하는 지역 예술회관 및 공연장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창의체험관은 상대적으로 교통 및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순회공연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 공연장'으로 대체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도, 내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추진

분뇨처리방식개선·축산악취저감·경축순환활성화 등 3개 분야... 7개 시군 166억 공모 신청

전북도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으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66억을 공모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분뇨처리방식개선, 축산악취저감, 경축순환활성화 등 3개 분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

설을 지원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시·군 주도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분뇨처리방식개선분야,

△축산악취저감분야, △경축순환활성화분야로 신청이 이뤄진다. 특히, 금년도 공모신청시 도와 시, 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청규모가 전년대비 84% 확대됐으며, 도 자체 평가를 실시 후 최종적으로 7개 시, 군을 선정 농식품부에 공모신청했다. /유호상 기자

이후 농식품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에서도 적극 대응해 공모선정을 통한 전북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시설 확충 등 축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안정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분뇨처리, 축산냄새 문제 해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현대화 실현"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가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불편하지 않고 장보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현대화 및 특화 먹거리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26일 순창시장 농협 사거리 유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정책 구현'에서 세부공약으로 발표했듯이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현대화'는 시장상인들의 현장 즉석에서의 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상인협회장 출신인 시장상인으로부터 시장으로 운영하는 '군내버스 증차와 도시가스 신설'을 현장 즉석에서의 요청을 세부공약으로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최 후보는 "군내버스 증차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참치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며 "시장상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신설 하겠다"고 강한 의지로 답했다. /유호상 기자

도, 과기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공모 선정

종이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간편 확인 가능

소방 안전교육 알림 등 총 7개, 전자고지로 전환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와 시, 군에서 발송하는 각종 종이 기반의 고지·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통해 고지·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수령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되는 업무로는 소방 안전교육 알림, 도로법 관련 위반 과태료, 민방

위 교육훈련 통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방세 체납통지, 세외수입 체납통지 등이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의 고지 정보가 취급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종이고지서의 배송 지연 및 분실 등에 따른 도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인쇄비·우편료 등 고지비용 예산 절감과 동시에 지원 소비 감소로 정부

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며, 단순·반복 업무 탈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김제, 완주, 고창 3개 시,군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2023년 이후로는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모든 도민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종이 사용량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 문의 063-288-9700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녕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일욱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대회제진위원장 손명영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포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 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